

행정·정책 체질 전환 ‘속도’ 사상 첫 국고 10조 시대 진입

광주시정 결산

광주시는 2025년 을 한해 행정과 정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속도를 냈다. 정부가 76년 만에 당직제 개편을 검토하기에 앞서 광주시는 이미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하고 AI당직기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통합돌봄, 초·중·고등학교 10시 출근제, 산단 근로자 조식 지원 등도 광주시가 먼저 시도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내년부터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며 전국으로 확산 될 예정이다.

행정 성과의 정점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사업은 강기정 시장이 취임 당시 제시한 ‘5+1 핵심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혔다. 광주시는 특정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례없이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를 무안으로 특정했다.

광주시는 미래도시기획단을 신설하고, 내년 초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출범시켜 248만평 종전부지와 마륙동 단·약고 부지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에서도 제갈 변화가 나타났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는 약속한 기한인 12월 22일 전면 개방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카드 10% 추가 환급, 특례보증,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맞춤형 회복 상담, 소비촉진 운동 등 5대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진 호남선 증편 요구가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월부터 KTX-산천 열차가 하루 2회 증편됐고, KTX-청룡 증편 운행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해묵은 난제를 해결해 온 광주시가 2026년을 ‘부강한 광주’ 원년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군공항 이전 난제 ‘해결’…돌봄·교통 정책 변화 지역 상권 회복 집중…내년 정부 예산 역대 최대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에 국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의 공간과 풍경도 변화의 흐름에 들어섰다. 더현대 광주 착공을 시작으로 광천터미널 복합화, 어등산 스타필드가 추진 계도에 올랐다. 마륙근린공원 개장,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준비, 영산강 100리길(Y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인 서창 감성조망대 개장 등은 도시의 여가와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민생과 돌봄 분야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광주시는 7+2 민생회복 지원정책에 6224억원을 투입해 소비 회복에 집중했고, 골목형상점가를 전국 최다인 622곳으로 확대했다. 광주 다음 통합돌봄은 의료 돌봄까지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출생가정 상생카드 지원 등 51개 돌봄 정

책에 2000억원대 예산을 집중한 결과, 광주는 최근 2개월 연속 출생 증가율에서 특·광역시 1위를 기록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AI·미래차·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시가 협약을 맺은 352개 기업 가운데 160개 기업이 실제로 광주에 정착해 64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2조 5000억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1조원 규모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구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재정 성과로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3조949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광주가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추며 정책 신뢰도를 높여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정 결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8기 전남의 성과로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구조적 전환’이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니라, 재정과 산업, 민생 전반에서 전남의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섰다”며 지난 7년간의 도정 성과를 분야별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 구조 변화와 AI·에너지를 축으로 한 산업 전환을 올해 도정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재정이다. 전남은 그동안 국고 확보 규모가 6조원대에 머물렀지만, 민선 7·8기를 거치며 사상 처음으로 국고 1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도 예산 역시 2018년 7조5700억원에서 2025년 13조7600억원으로 82% 늘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 “국비 확보 방식과 구조가 바뀐 결과”라고 설명했다.

확대된 재정은 위기 대응에 우선 투입됐다. 전남도는 2022년 3월 이후 7차례에 걸쳐 총 456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며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했다. 김 지사는 “재정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도민 삶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운용했다”며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남의 방향 전환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 지사는 민선 7·8기 7년간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5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8기 주요 성과와 2026년도 도정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고물가·고금리속 소상공인·취약계층 집중 지원 국가 균형발전 전략 대응…특별광역 연합 추진

산에너지 특구의 전남 전역 지정,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산업 지형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2위에서 9위로 상승했고, 가구소득 역시 16위에서 8위로 올라서며 주요 소득 지표가 전국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김 지사는 소득 지표 개선을 두고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초광역 협력 역시 전남 도정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됐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응했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과 남해안권 협력, 영호남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의 정책 반경과 영향력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개별 지자체 단위를 넘

어 권역 경쟁력 확보로 시야를 확장했다는 의미다.

오래 지역 현안 해결 성과도 함께 언급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예산 반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정과제 반영, 순천 동천과 장성 황룡강의 국가하천 승격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교통·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경전선 전철화, 목포·보성선 철도 개통, 섬 주민 전원 여객선 도입, 해상교량 건설 추진 등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 분야에서도 농업재해 공식 인정 확대, 사료비 지원, 마로해역 어업권 갈등 해결, 농어민 공익수당의 전국 확산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시교육감 출마 선언

“사람 중심 광주교육 대전환 이룰 것”

김용태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지부장은 23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광주교육은 멈춰 서 있다”며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교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등을 지낸 30년 교육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교직 이후 교육운동에 참여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지켜왔다”며 “모든 경험의 결론은 ‘사람 사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교육은 신뢰 붕괴와 행정 불통, 청렴도 하락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실효 있는 비리 근절 대책과 민주적 교육운동에 참여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해심 공약으로는 △교육감 직속 찾아가는 교권보호팀 설치 △학교별 학생동행지원팀 운영을 통한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또 △인성교육 강

화 △가짜뉴스 대응과 비판적 사고력 교육 등을 약속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공약으로는 “학자, 예술가, 기술자 등 모든 학생의 꿈이 공교육 안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일반·직업계고 임시·취업 전문가 배치 △특수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AI 시대 교육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라며 △AI 스마트 교실·학습지원실·스마트 도서관 구축 △교육청 차원의 AI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인간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는 “수업은 학교가, 방과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광주형 방과후·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용태 전 지부장은 “교육은 결국 사람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강성희 민주당 정책위의장, 목포시장 도전

“에너지 대전환 축으로 목포 확 바꾸겠다”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전남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더 이상 관료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한 ‘제2의 개항’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간 인구 4만5000여명 감소와 반박되는 재정위기 경고, 산업 경

쟁력 약화를 목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전남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채 비전으로는 RE100 기반 미래산업 대전환, 인구 활력 회복, 재정 구조 혁신을 제시했다.

강 부의장은 “목포의 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민과 함께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청년 312명, 일경험으로 자신감 키웠다

하반기 자기주도형 일경험드림 성과 공유 시, 우수활동청년 5명·우수드림터 4곳 선정

광주 대표 청년일자리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12명과 활동경험을 나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사업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고용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일자리 정책이다. 2017년 시작해 올해 하반기까지 7900여명의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사

업장에서 직무역량을 쌓았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18기 자기주도형 참여 청년들이 지난 5개월 동안의 직무 경험과 성취를 공유했다. 우수활동 드림청년으로 선정된 장성민·강유빈·김수민·박영주·이다운씨 등 5명이 현장실무 경험과 개인 성장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네트워킹 활동 참여, 활동보고서, 드림터 평가점수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또 참여하기 공모전에서는 디자인·영상·수기 부문 중 수기 부문에서 허지연씨가 대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참여 청년 전원에게 직무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참여증명



강 부의장은 1998년 무소속으로 제6대 목포시의회에 당선된 이후 시의원 3선, 재선 전남도의원,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조국혁신당, 호남 민심 다지기 24~27일 조국 대표 등 방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호남민심 다지기에 나선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23일 조국 대표와 당 지도부가 24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정치개혁과 당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호남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와 당 지도부는 첫 일정으로 24일 오후 1시 20분부터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다. 이후 전일빌딩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참여자치21’ 대표단·운영위원 간담회를 갖고 호남 정치개혁과 혁신당의 역할에 대해 경청할 계획이다.

창당 이래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담양군을 찾아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열리는 산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성탄 다음날인 26일에는 목포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방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철학, 서민정치 의의를 되새긴 뒤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장성군 당원 간담회, 곡성 정책설명회를 열고 27일에는 전복으로 이듬해 정을, 부안을 거쳐 고창에서 정책설명회를 연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당의 정책 방향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며 “호남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